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곽윤영** · 정문자***

초 록

본 연구는 성인기로의 전이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의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40명으로 평균 만 21.5세였다.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 한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자율성 및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더 관련이 있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대학생은 환경에 대한 통제감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자아수용 및 삶의 목적, 사회관계적 측면의 심리적 안녕감(긍정적 대인관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주제어 : 성인기로의 전이,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양육태도, 경제적 자립도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 한국청소년상담원, noraesori@hanmail.net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성인기로의 전이는 크게 다섯 가지 사건, 즉, 학교의 졸업, 부모로부터의 독립, 취업, 결혼, 부모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Shanahan, Porfeli, & Mortimer, 2005). 그러나 최근 청년기, 즉 성인기로의 전이에 변화가 있음이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성인기로의 전이에 관심을 가져온 여러 연구자들은 청소년이 이 다섯 가지 과업을 완성하여 성인이 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으며, 순서도 이전과 달라졌고, 그 양상도 다양해졌음을 발견하였다(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Shanahan, 2000).

첫째, 집을 떠나는 시기가 늦춰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남성 62.8%, 여성 53.7%에 이르며(통계청, 2005),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Arnett, 2004; Cordon, 1997). 둘째, 교육 기간이 연장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70년에는 26.9%, 1990년에 33.2%였으나 2008년에는 83.8%에 이른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셋째,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졌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75년에는 여성 22.6세, 남성 26.4세였으나, 2007년에는 여성이 28.1세, 남성이 31.1세가 되었다(통계청, 2008).

이 세 가지 변화 즉, 집을 늦게 떠나는 것, 교육 기간의 연장, 만혼 현상은 결국 나머지 두 개의 성인기로의 전이 사건인 취업과 부모됨의 시기도 늦춰짐을 뜻한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여 생활비를 벌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나, 최근에 많은 청년들은 부모의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여전히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 점을 포착하여 Arnett(2000; 2004)는 18세에서 25세를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 사이인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고 새롭게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성인 진입기의 젊은이는 사회적,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상당수가 경제적 활동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의 성인과는 구분된다고 하였다.

성인 자녀가 원가족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 동안 부모-자녀 관계는 혼란을 겪는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독립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내

외적 갈등을 겪고, 부모 역시 청소년 시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혼란을 경험한다. 매체에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헬리콥터 부모¹⁾’ 현상은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헬리콥터 부모처럼 어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자녀가 학교나 직장 등에서 해야 하는 일, 연인이나 친구 관계까지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모든 일을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책임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정서적 분리를 시도하며, 경제적인 지원 역시 최소로 줄인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나 경제적 지원 양상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것을 권한다(Arnett, 2004).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삶과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원가족 부모를 떠날 만한 동기가 부족하여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연구로 실제로 성인기로의 전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손희정, 2005; Arnett, 2000; Van Wel, Ter Bogt, & Raaijmakers, 2002). 이것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외다. 유사한 연구들로 Aquilino와 Supple(2001)과 손희정(2005) 등이 있으나, 청년기 현재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Aquilino 외(2001)는 청소년기 때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한 뒤 이것이 5년 후 성인기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손희정(2005)은 회상 기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연구에서 그 결과를 짐작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 축적된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은 양육뿐만 아니라, 학비 및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된다.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학생들이 쓴 돈의 총

1) ‘헬리콥터 부모’란, 청년기 자녀의 부모가 마치 헬리콥터처럼 성인이 된 자녀를 감시하고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자녀의 교육과 학습에 있어 자녀가 실패나 실수를 겪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Cline & Fay, 1990). 헬리콥터 부모는 바쁜 자녀를 대신해서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가 하면, 자녀의 취업을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석하기도 한다(중앙일보, 2007. 11. 5; USA Today, 2007. 4. 23).

량에서 부모가 지원한 부분이 얼마이나 하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소비한 전체 금액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한 부분, 즉 경제적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에게 수동적 행위임에 반해, 개인의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적극적인 자립 욕구의 표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것은 자신의 삶의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경제적인 측면을 둘러싼 부모와의 갈등을 줄이면서(Goldscheider, Thornton, & Yang, 2001) 개인에게 '해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부모로부터의 의존도를 전반적으로 낮출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가 스스로의 경제적 지출을 충당하는 것은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는 흥미로운 주제이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독립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김은영, 1993; 정은희, 1992; 차승은, 1999; Galland, 1997; Pimental, 1996). 그러나 중노년기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보고한다. 특히 퇴직자들의 경제적 활동은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다(김동배·박은영, 2007; 김미령, 2008; Crowther et al., 2002). 일을 하는 것은 퇴직자들에게 사회통합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산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하고 동료와의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고립감을 덜 느끼게 한다(Rowe & Kahn, 1998). 물론 일을 시작하기 전인 청년들과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퇴직자들에게 일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취업 이전의 탐색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활동은 청년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것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문제

- 1)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30세 미만의 미혼인 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교 한 곳씩을 선정하여 교양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부모 둘 중 한 분이 안 계신 경우의 응답은 제외하였다. 응답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54명(45.3%), 186명(54.7%)이었으며, 연령은 만 18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평균 연령은 21.5세였다. 학년으로는 2학년(31.5%)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4학년(27.6%)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각각 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오성심과 이종승은 기존의 양육 이론을 토대로 애정-적대와 자율-통제 차원을 구성하였으며, 성취-비성취와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N = 340)

| 변인 | 구분 | 빈도(%) | 변인 | 구분 | 빈도(%) |
|----|----------|------------|------------|---------|-----------|
| 성 | 남성 | 154(45.3) | 거주 형태 | 부모와 동거 | 209(61.5) |
| | 여성 | 186(54.7) | | 부모와 비동거 | 131(38.5) |
| 나이 | 만 18-20세 | 140(41.2) | 주관적 경제적 수준 | 매우 어렵다 | 4(1.2) |
| | 만 21-23세 | 136(40.0) | | 어렵다 | 23(6.8) |
| | 만 24-26세 | 58(17.1) | | 조금 어렵다 | 43(12.6) |
| | 만 27-29세 | 6(1.8) | | 보통이다 | 167(49.1) |
| | M(SD) | 21.5(2.24) | | 조금 잘산다 | 67(19.7) |
| 학년 | 1학년 | 57(16.8) | 잘산다 | 잘산다 | 33(9.7) |
| | 2학년 | 107(31.5) | | 매우 잘산다 | 3(0.9) |
| | 3학년 | 82(24.1) | | | |
| | 4학년 | 94(27.6) | | | |

합리-비합리 차원을 추가하여 총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를 고안했다. 여기에서는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만 사용하였다. 애정-적대 차원의 문항의 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얘기를 하신다’, ‘내가 어떤 일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함께 의논해 주신다’ 등이며 자율-통제 차원 문항의 예로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사다주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등이 있다.

각 하위차원은 15개의 문항으로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총 30개 문항에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4점 리커트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척도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애정적, 자율적임을 뜻한다. 부모 둘 모두에 대하여 답한 응답지만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 는 모는 .88, 부는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경제적 자립도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는 차승은(1999)이 고안한 경제적 자립도 공식을 응용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대학생이 평소에 지출하는 돈을 하위 항목인 등록금, 학원비, 용돈 및 생활비, 기타 비용으로 나누어 적게 한 뒤 6개월 동안 지출한 총금액 중 장학금 혹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저축하는 돈은 총수입에서 제하였으며, 자립도를 계산한 결과 1이 넘는 사례는 모두 1로 수정하였다.

$$\text{경제적 자립도} = \frac{\text{총수입 (만원)}}{\text{총지출 (만원)}}$$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병리나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행복,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개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느냐의 삶의 만족도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성숙이나 성장,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잘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의 척도를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가 번안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감,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의 여섯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46개이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Cronbach α 는 .91로 높은 편이었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자신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로 정의된다(Bandura, 1993). 심리적 안녕감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Sherer 외(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하위척도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23개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Cronbach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5) 통제 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성별 및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뒤,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본 연구자가 원하는 모든 독립변인의 효과를 알고자 하였기 때문에 동시입력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측정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이 중간점인 2.5점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생각되었다. 심리적 안녕감 중에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이 다른 하위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자기효능감보다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모든 하위변인이 약 3점 가까이 나타나 조사대상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적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조사대상의 경제적 자립도의 평균은 .26으로 총 지출하는 금액 중 약 1/4을 장학금 혹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충당하고 있었다.

<표 2>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340)

| 측정 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
| 심리적안녕감 | 자율성 | .35 |
| | 환경에 대한 통제감 | .37 |
| | 개인적 성장 | .36 |
| | 자아수용 | .41 |
| | 긍정적 대인관계 | .45 |
| | 삶의 목적 | .43 |
| 자기효능감 | 일반적 자기효능감 | .39 |
| | 사회적 자기효능감 | .52 |
| 부모의 양육태도 | 모 애정-적대 | .38 |
| | 모 자율-통제 | .39 |
| | 부 애정-적대 | .42 |
| | 부 자율-통제 | .41 |
| 경제적 자립도 | .26 | .28 |

2. 부모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 부 애정과 모 애정, 부 자율과 모 자율에서 .7 이상의 높은 상관이 발견되어, 이 변인을 각각 부모 애정, 부모 자율로 바꾸고 평균을 산출하여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이후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여섯 개의 하위변인 모두는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적 수준(SES),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및 경제적 자립도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의해 예측된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 자율성: $Y = 1.578 + 0.008X_1 - 0.097X_2 + 0.030X_3 - 0.022X_4 + 0.306X_5 + 0.055X_6$
 - 환경에 대한 통제감: $Y = 0.976 + 0.021X_1 - 0.055X_2 + 0.056X_3 + 0.102X_4 + 0.225X_5 + 0.228X_6$
 - 개인적 성장: $Y = 1.906 + 0.006X_1 - 0.004X_2 + 0.013X_3 - 0.151X_4 + 0.130X_5 + 0.131X_6$
 - 자아수용: $Y = 1.064 - 0.004X_1 + 0.033X_2 + 0.069X_3 + 0.247X_4 + 0.214X_5 + 0.223X_6$
 - 긍정적 대인관계: $Y = 1.110 + 0.007X_1 + 0.010X_2 + 0.046X_3 + 0.408X_4 + 0.073X_5 + 0.194X_6$
 - 삶의 목적: $Y = 1.359 + 0.014X_1 + 0.067X_2 + 0.005X_3 + 0.251X_4 + 0.121X_5 + 0.179X_6$
- (X_1 =나이, X_2 =성별, X_3 =SES, X_4 =부모애정, X_5 =부모자율, X_6 =경제적 자립도)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각 하위변인별로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자율성은 다른 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자율성은 .306 증가한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경제적 자립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변인은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p < .001$)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p < .01$)였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은 .225 증가하여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환경에 대한 통제감은 .228 증가한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최소년 패널 회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표 3>심리적 안녕감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인 | 자율성 | | 환경에 대한 통제감 | | 개인적 성장 | | 자이수용 | | 긍정적 대인관계 | | 삶의 목적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상수 | 1.578 | | .976 | | 1.906 | | 1.064 | | 1.110 | | 1.359 | |
| 나이 | .008 | .049 | .021 | .129* | .006 | .030 | -.004 | -.020 | .007 | .034 | .014 | .076 |
| 성별 | -.097 | -.157* | -.055 | -.075 | -.004 | -.006 | .033 | .040 | .010 | .011 | .067 | .078 |
| SES | .030 | .090 | .056 | .164** | .013 | .038 | .069 | .182** | .046 | .111* | .005 | .012 |
| 부모애정 | -.022 | -.023 | .102 | .102 | .151 | .155* | .247 | .224*** | .408 | .336*** | .251 | .217*** |
| 부모자랑 | .306 | .321*** | .225 | .227*** | .130 | .134* | .214 | .195** | .073 | .060 | .121 | .105 |
| 경제적자립도 | .055 | .044 | .228 | .177** | .131 | .103 | .223 | .156** | .194 | .123* | .179 | .119* |
| R ² | .130 | | .159 | | .075 | | .187 | | .149 | | .105 | |
| F | 8.288*** | | 10.497*** | | 4.529*** | | 12.764*** | | 10.926*** | | 6.530*** | |

*p<.05 **p<.01 ***p<.001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 개인적 성장은 다른 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자율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모의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개인적 성장은 각각 .151 및 .130 증가한다. 경제적 자립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자아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로(각각 $p < .001$, $p < .01$, $p < .01$), 부모의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자아수용은 각각 .247 및 .214 증가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자아수용은 .233 증가한다.

대학생의 긍정적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로(각각 $p < .001$, $p < .05$),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336 증가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긍정적 대인관계는 .123 증가한다.

대학생의 삶의 목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로(각각 $p < .001$, $p < .05$),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삶의 목적은 .217 증가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삶의 목적은 .119 증가한다.

3. 부모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 부모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두 개의 하위차원은 모두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적 수준(SES),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및 경제적 자립도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견한 다중회귀식(일반적 자기효능감: $Y=1.309+0.010X_1-0.071X_2+0.023X_3+0.200X_4+0.202X_5+0.163X_6$, 사회적 자기효능감: $Y=1.203+0.007X_1-0.087X_2+0.058X_3+0.304X_4+0.055X_5+0.209X_6$)은 각각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차원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로(각각 $p < .01$, $p < .01$, $p < .05$), 부모의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각각 .200, .202 증가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163 증가한다.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로(각각 $p < .01$, $p < .05$),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할 때,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216 증가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115 증가한다.

<표 4>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인 | 일반적 자기효능감 | | 사회적 자기효능감 | |
|----------------|-----------|---------|-----------|---------|
| | B | β | B | β |
| 상수 | 1.309 | | 1.203 | |
| 나이 | .010 | .055 | .007 | .031 |
| 성별 | -.071 | -.090 | -.087 | -.083 |
| SES | .023 | .063 | .058 | .120* |
| 부모애정 | .200 | .188** | .304 | .216** |
| 부모자율 | .202 | .191** | .055 | .039 |
| 경제적자립도 | .163 | .118* | .209 | .115* |
| R ² | .138 | | .087 | |
| F | 8.884*** | | 5.300*** |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IV. 논 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성인됨이 점점 늦춰지는 가운데 본 연구는 성인기로의 전이기에 있는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제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 하였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개념 대신 자녀의 적극적인 독립 의지를 더 강조하는 경제적 자립도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독립변수,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심리적인 성숙의 개념을 포함하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대학생 34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차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회귀분석 내에서 또 다른 독립변인인 자율적 양육태도가 존재했을 때의 영향력이므로 독자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개인적 성장, 즉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시키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자아수용을 높이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사는 의미를 아는 삶의 목적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마치 유아 시절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세계를 탐색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정체감 형성이라는 뒤늦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청년들이 부모의 애정적 양육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밖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한 대학생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성인기로의 전이기에 놓인 청년들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부모의 애정적, 수용적 양육이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연구 결과(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Nelson & Metha, 1994; Plunkett et al., 2007)와도 연결된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성장 및 자아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애정적 양육태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이라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 점수가 높았다. 자율성은 타인의 영향을 적게 받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에 대한 통제감은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잘 관리하며 자신의 욕구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을 덜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할수

록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숙달감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을 대신 해주는 것보다는 자녀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적인 설명이 실증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양육의 영향이 10대를 넘어선 대학생에까지 지속됨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두거나 신경쓰지 않는 방임적 양육태도가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을 촉진하면서도 자녀의 결정을 지지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넘어서 청년기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Aquilino et al., 2001; Bucx & Van Wel, 2008),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연구는 경제적 활동과 심리적 독립 간의 관계를 주로 보았다면 본 연구는 그 이상의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대학생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 직업을 갖기 이전에 용돈을 벌기 위해서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인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차승은, 1999). 그러나 경제적인 독립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삶 전반에 있어서 책임감과 선택권을 넓힌다. 이것은 연구결과로도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 환경에 대한 통제감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은 일 자체로서의 효과도 가진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연구 결과에서 자립도가 높은 대학생이 긍정적 대인관계나 사회적 자기효능감, 삶의 목적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런 점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와 관련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퇴직자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가지면서 동료와의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고 고립감을 덜 느끼는 것(Rowe et al., 1998)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와 퇴직자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경제적 자립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자립은 가족들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우며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기능도 하게 한다.

본 연구는 성인기로의 전이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을 정신병리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서 상태나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성숙의 개념을 포함하는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나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개인의 성장에 있어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교 두 곳의 교양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였으며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는 있으나 선행적 인과관계를 추론하기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선행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대학생에 사용해도 무리 없으리라는 전문가의 판단 하에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확대된다면 좀 더 이들의 부모-자녀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취업 이전의 청년들의 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더 다양해지는 일자리와 복잡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삶에서 일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찬(2007). “엄마가 다 해줄게” 헬리콥터맘. 중앙일보. 2007. 11. 5.
- 김동배·박은영(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 비수급빈곤, 수급빈곤 여성노인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8권 겨울호, pp.339-358.
- 김문혜·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제20권 제4호, pp.195-211.
-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2호, pp.19-39.
-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회지, 제28권 제1호, pp.33-48.
- 김은영(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9-33.
- 손희정(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사회 성숙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제11권 제1호, pp.1-15.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승은(1999).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분거 경험이 정서적 및 기능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5). 주제별)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05))전수부문: 성/혼인상태/연령/교육정도별 인구(15세이상).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08). 주제별)인구·가구)인구동태)혼인: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서울: 통계청.
- Armour, S. (2007). ‘Helicopter’ parents hover when kids job hunt. *USA Today*. 2007. 4. 2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5, pp. 469-480.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quilino, W. S., & Supple, A. J. (2001). Long-term effects on parenting practices during adolescence on well-being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2 No. 3, pp. 289-30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8 No. 2, 117-148.
- Bucx, F., & Van Wel, F. (2008). Parental bond and life course transition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dolescence*, Vol. 43 No. 1, pp. 71-88.
- Cline, F. W., & Fay, J. (1990). *Parenting with love and logic: Teaching children responsibility*. Pinon Press.
- Cordon, J. A. (1997). Youth Residential independence and aut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8 No. 6, pp. 576-607.
- Crowther, M. R., Parker, M. W., Achenbaum, W. A., Larimore, W. L., & Koenig, H. 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 - the forgotten factor. *Gerontologist*, Vol. 42 No. 5, pp. 613-620.
- Furstenberg Jr., F. F., Rumbaut, R. G., & Settersten Jr., R. A.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In R. A. Settersten Jr., F. F. Furstenberg Jr.,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lland, O. (1997). Leaving home and family relations in Franc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8 No. 6, pp. 645-670.
- Goldscheider, F. K., Thornton, A., & Yang L. (2001). Helping out the kids: Expectations about parental suppor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 Marriage and Family, Vol. 63 August*, pp. 727-740.
- Nelson, D. M., & Metha, A. (1994).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in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dolescence, Vol. 29 Fall*, pp. 525-542.
- Pimental, E. E. (1996). Effect of adolescent achievement and family goals on the early adult transition. In J. T. Mortimer & M. D. Finch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CA: Sage Publications.
- Plunkett, S. W., Henry, C. S., Robinson, L. C., Behnke, A., & Falcon III, P. C.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16 No. 6*, pp. 760-772.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 37 No. 4*, pp. 433-44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6*, pp.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No. 4*, pp. 719-727.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s of Sociology, Vol 26*, pp. 667-692.
- Shanahan, M. J., Porfeli, E. J., & Mortimer, J. T. (2005). Subjective age identit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R. A. Settersten Jr., F. F. Furstenberg Jr.,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rer, M., Maddux, J. E., Merca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 Van Wel, F., Ter Bogt, T., & Raaijmakers, Q. (2002). Changes in the parental bond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dolescence, Vol. 37*, pp. 317-333.

〈부 록 1〉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N=340)

| | 인구학적 변인 | 부모 양육 | | | | 경제적 자립도 |
|-----|------------|-------|---------|---------|---------|------------|
| | SES | 모애정 | 모자율 | 부애정 | 부자율 | |
| 나이 | -.117* | -.026 | .095+ | .029 | .089 | -.007 |
| SES | | .103+ | -.057 | .131* | .042 | -.304*** |
| 모애정 | | | .514*** | .724*** | .448*** | -.030 |
| 모자율 | | | | .372*** | .729*** | .041 |
| 부애정 | | | | | .466*** | -.036 |
| 부자율 | | | | | | -.014 |

+p<.10 *p<.05 ***p<.001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 Rearing Practices and College Students' Financial Independenc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fficacy

Kwak, Yoon-Young* · Chung, Moon-Ja**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hild-rearing practices and college students' financial independenc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fficacy. Three hundred and forty students at two colleges in Seoul and Gyeonggi-do completed questionnair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Ryff, 1989), self-efficacy (Sherer et al., 1982),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Oh & Lee, 1982), and a financial independency rating scale(revised version of Cha, 1999).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parents' acceptive parenting was associated with students' overall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fficacy whereas parents' autonomic-granting parenting behavior was more closely related to their levels of autonomy and environmental mastery. Students with higher financial independency reported higher levels of environmental mastery, general self-efficacy, self acceptance, and their purpose of life and social par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relationship and social self-efficacy).

Key Words : transition to adulthood,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fficacy, parenting, financial activities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6월 10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Yonsei University, Child & Family Study

